



반갑다, 봄아!

4월, 흥겨운 축령산 봄꽃축제

축령산에 무지갯빛 비라도 촉촉이 내렸던 걸까요?

야생화들이 그들만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기 저기 등산하는 곳마다 알록달록 예쁘게 수놓인 야생화들이 “색동옷으로 같이입었어요~!” 라고 너도나도 자랑하는 것 같았고, 곳곳에 피어있는 나무들의 수려한 자태는 눈과 마음을 한껏 즐겁게 해 주었습니다. “산에 오면, 몸도, 마음도 풍요로워진다”는 말이 실감나는 하루였습니다. 공부도 하고, 봄과 정겹게 인사도 하고...

2007년 4월 14일 토요일, 경기도에 위치한 축령산에서 푸른숲선도원 지도교사 4월 생태모임이 있었습니다. 26명의 참석자들은 축령산에서 공부하는 내내 오색실을 수놓은 듯한 산의 자태에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야생화



미국제비꽃



남산제비꽃

돌단풍 - 잎이 단풍잎처럼 생기고 돌 틈이나 돌 위에 쪽 자람

금낭화 - 분홍빛 꽃 모양이 여학생의 머리모양처럼 생김

할미꽃 - 뿌리가 유독성이라 재래식화장실에 사용함

제비꽃

* 미국제비꽃(중지나물) - 흰색꽃, 외래종, 번식력 강함

* 남산제비꽃 - 잎이 선처럼 가늘게 갈라져 있음

산괴불주머니 - 그늘, 숲, 도로의 햇빛이 잘 드는 경계면에서 산다. 노란색 꽃이 촘촘히 남. 잎이 아주 많이 갈라져 있음

연복초 - 1과1속. 복수초에 이어서 핀다고 하여 연복초. 꽃이 동서남북위까지 5방향으로 다 피어있음

피나물 - 줄기를 자르면 붉은색의 액이 나와서 피나물. 노란 색 꽃이 줄기사이에서 나옴

풀솨대 - 긴타원형잎이 줄기양쪽을 어긋남. 줄기 끝에서 흰색의 꽃이 원뿔모양으로 꽃송이 이룸



산괴불주머니



연복초



피나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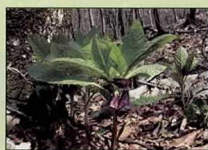
풀솨대



족두리꽃



복수초



미치광이풀



처녀치마

족두리꽃 - 꽃의 모양이 족두리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 잎은 보통 뿌리마디에서 2개씩 나옴

복수초 - 잎이 잘게 갈라져 있음. 밤에는 꽃잎이 오므라들고 낮게 활짝 펴

미치광이풀 - 환각제. 진보라색 꽃이 잎사이 아래로 늘어져 있음.

처녀치마 - 잎이 처녀의 치마처럼 퍼져있다고 붙여진 이름. 잎은 상록성. 보라색꽃이 모여남

홀아비바람꽃 - 꽃대가 1개로 한송이씩 꽃이 피며 꽃잎이 5장. 잎이 5개로 갈라지고 다시 3-5갈래로 갈라짐. 꽃밥이 노란색

나도바람꽃 - 1장의 3출엽으로 갈라지고 작은잎도 다시 깊게 갈라짐. 흰색꽃이 모여서 피

얼레지-잎이 알록달록하여 또는 꽃이 물레처럼 돌려져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뿌리가 30-50cm까지 내려가 있어 캐기가 어려움. 1-5년 씨앗이 땅속에 있다가 6년째 잎이 나오고 7년째 꽃이 피

달맞이꽃 - 2년생. 로제트형(땅바닥에 바짝 붙어서 사는 형태)으로 겨울을 남. 꽃이 밤에 피며 자외선으로 곤충을 유혹하여 수분을 함.

개별꽃 - 위의 잎 4개의 크기가 아래 2잎의 크기와 비슷하다. 흰색 꽃이 피.



홀아비바람꽃



나도바람꽃



나도바람꽃



애기괭이눈



선괭이눈



털괭이눈



꽃다지



산바늘



달래



얼레지



개별꽃



금낭화



꽃바지



분홍할미꽃

〈글/장은영(한신초 교사)〉